

[특집] 구제역 종식 이후를 준비하자

구제역 발생사례 및 이후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홍순찬
본회 기획조사부장

1. 서 언

구제역(FMD ; Foot and Mouth Disease)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정한 A급 15개 전염병, 그 중에서도 전파력이 강한 질병으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우제류(偶蹄類)동물에만 감염되며, 특별한 치료약이 없고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매물 또는 소각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이러스 잠복기는 7일~14일 이라는 정도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구제역이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 혹은 재앙으로까지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이후 금년 2011년 2월 27일 현재 돼지를 포함해 모두 3,442천마리의 가축이 매몰처분 되어 우리나라 축산업은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각국의 발생사례와 이후의 변화

구제역의 세계적인 발생지역 및 나라들을

보면 동남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남미지역 국가들에서는 상시 발생하는 반면에 유럽이나 북미 지역 국가들에서는 아주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 권역별·국가별로 구제역 발생의 차이는 해당 국가의 방역역량 또는 사양환경 등 가축위생의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2001년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2007년에 영국, 2011년 불가리아에서 발생하였듯이 유럽지역의 국가들에서도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시 발생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들 국가로 부터의 인적/물적 유입이 증가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같은 이유로 향후 전 세계적인 구제역 발생 위험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극동 아시아에서의 발생동향을 보면 1997년 대만, 2000년 한국과 일본, 2002년 한국에서 발생한데 이어 지난 2010년에는 1월 한국, 2월 대



만과 홍콩, 4월 한국과 일본, 6월 대만 그리고 11월에 다시 한국에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극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빈발 원인으로서는 감염지역과의 물적·인적인 교류의 증가, 감염국(동남아, 중국)인력의 유입증가, 감염국 여행 및 물자유입 증가로 보여 지며 이들 요인들을 볼 때 한국에서의 재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 대 만

우리나라에서의 구제역 발생 이후 자주 거론되고 있는 대만의 경우는 지난 1930년 발생 보고 이후 67년만인 1997년 3월 20일부터 7월 16일 까지 발생하였다. 구제역 발생 이전의 대만 양돈산업은 1,100만두의 사육 규모에 연간 32억\$의 생산액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 양돈생산액은 대만의 총 농업생산액의 21%를 점하고 있었다.

또한 연간 600만두 정도를 수출하였는데 특히 일본 돼지고기 수입량의 약 40% 가량이 대만으로부터 수입되었다. 구제역 발생으로 총 사육규모의 35%에 해당하는 385만두의 돼지를 살처분 하였는데 살처분 대상 돼지의 전수조사 결과 살처분 돼지중 감염축은 185천두로 조사되었다.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추계한 경제적 피해는 방역비용 등 직접손실과 사료·식육 가공 등 관련 산업의 간접피해를 포함해 모두 2,800NT\$(원화환산 약 8조 3천억원)에 이르러, 당시 대만의 경제성장율을 1.4% 가량 후퇴시키는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구제역 이후 대만은 1997년 10월 당시 119

만두 수준의 모돈수를 70만두 수준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해 1998년부터 강제도태시키는 등 과거 수출산업을 내수산업 위주로 전환하였다. 또 1998.6월 신축산법을 제정하여 돼지 20두 이상 농민들에 대한 등록제 실시와 환경(수자원 및 토양)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대만의 돼지 사육동향을 보면 구제역 발생 이전인 1996년 1,070만두에서 발생연도인 1997년에 797만두, 지난 2008년에는 643만두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제반 여건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 역시 1996년 422만톤에서 1998년 328만톤, 2006년에 348만톤이 생산되어 구제역 이후 추세적인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 영 국

2001년 2월 19일 발생하여 9월 30일 종식된 영국의 구제역으로 돼지, 양 등 우제류가 총 600만두가 매몰 또는 수매방식으로 처분되었는데 이는 1999년 기준 영국의 총 우제류가축의 사육두수(5,790만두)의 10.4%에 해당되는 것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위기 극복 타개 및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살처분과 수매를 병행하였다. 영국에서의 구제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유럽연합(EU)의 구제역 백신기피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장기간의 발생기간이 약 392만두(소 60

만두, 양 317만두, 돼지 14만두) 살처분이라는 기록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정부의 직접지출, 농가 등 민간피해 그리고 관광대국의 이미지 훼손 등 모두 100억파운드(원화환산 약 16조 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구제역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양(羊)의 사육동향을 보면 발생 이전인 1999년 2,027만두, 발생연도인 2001년 1,614만두, 2009년 1,498만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도 양과 같은 연도 기준으로 828만두, 559만두, 472만두로 집계되어 구제역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축산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 구제역 파동 이전에는 살처분만을 고려하던 정책에서 백신접종도 도입(2006년)하게 되었다.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도 크게 전환되어 축산관련 행정조직의 명칭조차도 과거 농림성(MAFF)에서 환경식품농촌부(DEFRA) 변경하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다양성, 환경 등 종합적인 농촌경제 중심으로 역할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 네덜란드

같은 EU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영국과는 사뭇 다른 방역조치를 펼친 네덜란드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가축을 살처분하고 구제역을 종식시켰다. 2001년 3월 염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72시간 stand-still 시책(전국의 모든 농장에 대하여 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발병여부를 확인)을 시행하여 감염축 1km이내 우제류가

축에 대해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EU 집행부의 구제역 백신접종 기피에도 불구하고 감염축 2km이내 가축에 대해 Ring백신을 신속히 실시하였다. 이후 링 백신 외곽으로 백신지역을 외연으로 확대(발생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백신접종을 확대시켜 나가는)하고 EU규정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우제류가축 25만두를 살처분했다.

구제역 발생이전인 1998년부터 이미 환경문제 등으로 축산업(양돈) 쿼터제를 도입하였고 2001년 구제역 이후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방역결과를 보인 네덜란드 역시 소, 돼지 모두 추세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 일본

일본은 지난 2010년 4월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하여 3개월 여간 지속되었다. 당초 일본 방역당국에서는 3월 26일에 의심축이 처음 신고되었으나 음성으로 오판하고 1개월여 지난 4월 20일에서야 양성으로 확진함에 따라 감염지역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발생후 매몰처분으로 대응하다가 방역개시 1개월이 지난 5월 22일부터 백신을 실시하고 백신접종한 우제류가축 29만두를 살처분 조치하였다.

일본의 백신접종 방식은 네덜란드와는 반대로 미야자키현 외곽에 대하여 선제적인 방역대를 설정하고, 방역대 외곽으로부터 발생지역으로 좁혀오면서 백신을 실시하였다. 이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야자키



현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은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발생지역내 총 마리수 대비 소가 50.4%, 돼지가 79.1%, 기타우제류 가축 18.7%가 살처분되어 여타 발생 국가에 비해

높은 비율의 살처분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 당국에서는 향후 5년간 약 2,350억 엔(환화환산 약 30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 1] 일본(미야자키현)의 살처분 현황

	소(옥우+젖소)	돼지	기타(사슴 등)	계
사육두수 (A,두)	68,272	220,034	343	288,649
살처분두수(B,두)	34,412	174,132	64	211,608
살처분비율(%B/A)	50.4	79.1	18.7	73.3

(주) 총농가수 1,304호 중 22.4%의 292농가가 살처분 함.

3. 한국의 구제역 발생사례와 영향

□ 발생사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해는 1933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0년 들어 발생빈도가 증가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포함해 모두 여섯 번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모두 1,522천여 마리의 가축에 백신이 접종되었던 2000년 3월 경기도와 충남·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약 2천두의 가축을 처분하고 2001년 9월 종식되었다.

이후 2005년 5월 경기도와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약 160만 마리의 가축이 매몰 처분 되었으며, 2010월 1월에서 4월까지 경기(포천,강화, 김포) 및 충북(충주,청양)에서 발생하였던 구제역은 지속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56천두의 가축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23일 처음으로 신고되어 5일 후 양성판정으로 시작된 구

제역은 예년과 달리 빠르게 확산되어 2011.2.27일 현재 전라남·북도과 제주도를 제외한 11개 시·도 75개 시·군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진행중에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구제역의 방역관련 진행과정을 보면 지난해 11월 28일 주의단계(양성판정)에서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 우제류가축 및 발생농장과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 농장을 매몰처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경기 북부지역으로 전파됨에 따라 '10년 12월 23일 경계단계로 방역단계를 격상하고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 축우(젖소와 한육우)에 대하여 제한적 접종백신을 실시하였다. 백신의 접종에도 불구하고 3개 시도 이상으로 확산된 금년 1월 13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방역단계를 상향조정하고 전국의 모든 소, 돼지 및 우제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였다.

<표 2> 한국의 과거 구제역 발생사례

발생시기	발생지역	처분마리(천두)	피해액(억원, 추정)	종식일
1933	전국(충남북, 전남북 제외)	-	-	1934
2000.03	경기, 충남북	2	3,006	2001.09
2002.05	경기, 충북	160	1,434	2002.11
2010.01/04	경기, 충북	56	2,357	2010.09

(주) ① 2000년 발생시에는 우제류 1,522천두에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과거에 발생하였던 구제역에 비해 이번의 구제역이 보다 빠르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예년과 비교되는 몇가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발생시기가 과거에 비해 계절적으로 기온(氣溫)이 매우 낮은 시기에 발생함으로써 소독액 및 소독장비의 결빙 등으로 차단 소독방역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은 최초발생의 지역적 위치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예년의 경우 구제역이 경기 북부지역(강화도 포함)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축 밀집사육 지역인 경기 남부 및 충청권으로 전파(확산)되는 길목에 수도권이 위치하고 있어 농장 출입 요소인 사람이나 차량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차단되었던 반면에 이번의 구제역은 경북 안동→경기 북부→충남·북으로 확산되는 경로로 볼때 예년과 달리 기계적 전파를 차단해 줄 수 있는

도시화지역이 상대적으로 존재치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제역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경북 안동에서 경기 북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의 미숙한 초동방역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 가축사육규모의 축소

2011년 2월 27일 현재 모두 돼지 3,281천두를 비롯해 소 151천두, 기타우제류 10천두가 매몰처분 되었다. 2010년말 가축별 총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할 때 소는 4.5%, 돼지는 33.2%, 기타 우제류는 2.6%를 살처분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매몰처분 가축보상비, 매몰비용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사료·동물약품·가공유통 등 간접적인 피해액을 감안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표 3> 한국의 가축매몰 처분 현황(2010.11월 발생)

(단위 : 천두, 2011.2.27일 현재)

	소(젼소+우우)	돼지	기타(사슴+염소)	계
발생농장수(개)	3,744	2,029	378	6,151
총사육두수(A)	3,352	9,881	330	13,563
살처분두수(B)	151	3,281	10	3,442
살처분비율(% B/A)	4.5	33.2	2.6	25.4

(주) 가축별 총 사육두수는 2010년 추정치 임.



□ 배합사료 시장의 위축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마리수를 감안하여 추정하는 경우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2010년 배합사료 생산량 대비 2,139천톤, 12.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축종별 사료생산량 감소율을 보면 돼지사료가 1,838천톤 감소해 구제역으로 인한 사료생산감소량의 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젖소

가 120천톤으로 9.3%, 그리고 한(육)우사료가 181천톤으로 4.8%를 점하고 있다. 구제역 이외에 2011년 2월 27일 현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가금류(닭, 오리 등) 매몰처분까지를 감안하면 2010년도 사료생산량 대비 13.5%, 2,370천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배합사료 생산량 감소

	한(육)우	젖소	돼지	양계	오리	기타	계
사료생산량(A,천톤)	4,761	1,292	5,535	4,658	630	658	17,534
살처분비율(B,%)	3.8	9.3	33.2	2.3	19.7	-	-
사료감소량(천톤, A× B)	181	120	1,838	107	124	-	2,370

4. 축산/사료산업 경영환경의 변화

□ 원상회복의 경우라도 상당기간 소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구제역이 발생하였던 여러 국가들의 예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환경관련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가축사육규모가 줄어들거나 혹은 원상회복되는 경우라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상회복이 전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소 151천두가 살처분되어 이미 전체 사육규모의 4.5%가 감소한 상황에 있다. 현 시점에서 소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정상 회복되는 시기를 추정하면 이미 진행된 살처분의 영향으로 13개월 동안 가임암소 감소, 이후 23개월까지 송아지 마리수가 감소, 이후 36개월까지 가임암소 마리수가

회복, 이후 46개월까지 송아지 마리수가 회복되어 이때부터 소 출하체중까지 도달되는 30개월이 흐른 76개월이 지나야 정상회복이 가능하다.

양돈산업 역시 재입식을 하기 까지 농장 청정화 등에 최저 4개월이 소요되며 입식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정상출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구제역 발생초기에 모돈이 많이 감염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돈확보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돼지의 경우도 정상화시기까지는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 허가제 도입 등 축산업 신규진입 장벽 강화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1년 중 축산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개정의 주요내용이 현행의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축산업 허가제의 내용을 보면 구제역, AI 등 감수성이 예민한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 농가 중에서 사육면적 50㎡ 이상의 농가를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차단방역·환경관리·분뇨처리 등 기본소양 교육 이수율 의무화 하는 등 축산업 신규진입에 장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전국적인 구제역의 확산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지역 주민들의 축산업 기피현상은 깊어져 우리나라 축산업 규모를 더욱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축산업에 대한 환경관련 규제 강화 우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축 매몰지에 대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대만과 영국에서와 같이 구제역 이후 축산업에 대한 환경관련(수자원 및 토양) 규제가 더욱 강하게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축산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의 문제는 연간 약 4,400여만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1인당 농지 면적이 약 34㎡(112평)으로 이미 세계 최소 수준에 있을 뿐 아니라 질산 및 인산의 배출량이 OECD국가 중 최고 많이 배출하고 있음에 비춰 그 심각성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유럽에서와 같이 일정 두수를 사육하는 경우 일정면적의 경지확보를 의무화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축산업에 대한 환경관련 규제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방역관리 강화, 안전축산물 요구에 따른 경영비용의 증가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구제역(AI포함)등 가축질병 긴급방역요령(SOP)은 국가적인 재난 또는 재앙수준으로 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향후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번 구제역의 확산을 초기에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데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으나 농장단위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통제(소독 및 차단방역)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질병관련 제도나 지침이 강화되어 농장의 수의사 고용의무화, 방역시설 설치 및 축사시설의 개선과 같이 농장단위에서의 방역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료·정액·시설기자재 등과 같은 축산연관 산업에서의 방역장비 보완, 수의약품 등의 수요 증가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안전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안전축산물 생산 수단으로서 농장 또는 사료회사 단위에서의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사용저감이 진행중에 있으며, 항생제 등 사용저감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양기술 개발과 대체물질 사용이 요구되는데 이 역시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향후 밀식 사육 환경개선의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에 부응하려면 축산물 단위당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 전체 축산업의 고비용구조를 가속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수입축산물에 의한 시장잠식 가속화 우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의 구제역 파동을 지켜보면서 이제까지 가져왔던 "국내산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우려되며,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가시화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입축산물의 소비량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구제역의 상시발생국 또는 백신접종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물 수입위생조건(SPS)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면 수입축산물에 의한 시장잠식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5. 사료산업(사료기업)의 대응방안

□ 사료산업 구조조정 불가피, 가격생산성 등 경쟁력 강화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전체 우제류가축의 평균 살처분비율이 25%를 넘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구제역이 발생하였던 나라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관련 규제의 강화, 제반 축산업 경영비용의 증가 등으로 구제역 이전 보다 축산업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축의 생물학적 한계로 인해 축산업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배합사료 시장은 상당한 크기의 축소가 예상된다. 즉, 사료 시장 축소에 따른 사료기업간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올 것이다.

축산물 생산자재인 사료의 경쟁력, 특히, 구제역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재편되는 시장에서의 사료(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가격안정, 동물의 건강증진 효과 여부, 질병 저항성 및 기능성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연구개발 강화로 이들 요소들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농가/농장수요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

구제역 이전부터 제반 여건상 농가 사육규모의 전·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양축농가수 보다 사료공장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6천여 농가의 재입식 과정에서 계열화업체 등에 의한 농장인수 등 축산의 규모화가 더욱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전체 사육마리수 감소에 따른 악영향에 추가하여, 농가(농장)수의 감소에 따른 사료기업의 판매처 확보경쟁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해 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사료기업에서는 축산농가의 가축질병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주는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농장단위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방역관련 규제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농가 재건을 위한 자금지원, 질병관리를 위한 수의서비스 확대와 경영컨설팅 강화도 중요한 경쟁수단이 될 것이다.

□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생산 및 물류시스템 구축

몇몇 사료업체가 이번 구제역으로 이동제한에 묶여 상당기간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다. 사료공장에 있어 이동제한은(인근 사료 기업에 의한 주문생산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곧 기업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차후 이동제한에 따른 사료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다양화(과거에는 가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전문화 선호)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체간 생산시설 및 하차장 등 물류시설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유사시 주문생산을 위한 MOU체결)을 통해 지역별·권역별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분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획기적인 사료산업 지원정책 필요

현재 정부도 그렇고 각 축종별 생산자단체에서도 구제역 이후 해당부문에 대한 재건대책을 활발히 준비하고 있다. 축산업 생산자(농가)들에 대해서는 살처분 가축의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며, 과거의 예로 볼 때 농장단위의 재건과정에서 시설개선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 축산선진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기대하건데 이번 정부의 축산선진화 대책 등에는 부디 배합사료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가능한 많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배합사료 시장규모가 7조원 대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우리나라

의 사료원료의 실질 수입의존도가 95% 이상임을 감안하면 시장규모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금이 있어야 운영되는 산업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금번 구제역으로 가축 살처분에 따라 해당농가로부터 사료 판매대금의 회수 지연 또는 불가, 갑작스런 질병발생으로 예측하지 못해 미리 구매한 원료대금의 상환 시기 도래, 축산업 규모축소에 따른 장기간의 공장(시설)가동을 하락 전망, 이집트·리비아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폭등 등의 영향으로 국내 배합사료 산업은 심각한 자금유동성 위기에 봉착해 있다.

더욱이 기업자산을 담보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민간 배합사료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저리(低利)의 운영자금 지원(약 6,000억원 규모-민간사료기업의 3개월치 원료구매자금 기준)이 필요하다. 여기에 축산/사료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부가가치세 의재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6/106 - 음식점업 적용 공제율)조정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